

北, 대남풍선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350여km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 합참 “추적·감시 세부 제원 분석” 29·30일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하는 등 지난 27일 한중일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사일들은 35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km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

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가 낙하해 들어간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km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으로,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쏘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또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물풍선에서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풍선의 적

재물에서 담배꽂초, 퇴비, 폐전전자, 폐 전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다. 1개 풍선에 달린 적제 오염물은 약 10kg 정도이고,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남쪽으로 내려온 오물 풍선은 260여 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북한은 29일 새벽에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한데 이어, 30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50분께부터 서북도서 일대에 대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 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도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3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백일해 유행...광주시, 적기 예방접종 당부

전국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폭증...예방수칙 준수를

광주시는 30일 “최근 지역 내에서 아동·청소년 위주 백일해 환자가 유행하고 있다”며 적기 예방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29일 기준 올해 백일해 누적 발생 건수는 전국 9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명보다 3배 이상 폭증했다. 광주에서도 38명이 발생해 지난해(23명)보다 65.2%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이후 최대 발생 건수다. 제2급 감염병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

(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들은 전형적인 백일해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가벼운 기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생후 2·4·6개월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추가접종의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백일해는 현재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18종

에 포함돼 있어 표준접종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 중 과거 예방접종을 누락했거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 완료자에 비해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송혜자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방역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정책 꾸러미 ‘소행성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의 행복한 성장’ 간담회 로컬 브랜드 육성 시책 등 발표

전남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지원 정책 꾸러미인 소·행·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순천 옷장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 지원을 위한 ‘소행성(소상공인의 행복한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행성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촉진 ▲지역 상권 활성화 ▲공공·상생배달업 가맹점·소비자 마케팅 지원 ▲로컬 브랜드 육성 시책 등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정책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을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 일부(3.0~3.5%)를 지원

하는 사업.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 규모를 국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비(3500억원)를 추가로 1조원대로 유지하고 착한가격업소, 원도심 상점가, 타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율(12~15%)을 높여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공 상생배달업 가맹점 신규 가입 시 20만원 지원,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한편, 배달업 이용 소비자에게도 500원 쿠폰, 5% 페이백 등 할인혜택을 제공해 공공·상생배달업 활성화를 꾀한다. 로컬 대표 상점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운송비와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옷장 상인회 관계자들도 “옷장 상인회 주도로 준비 중인 국립축제, 남도음식거리 홍보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복지시설 아동 ‘마음 챙기기’ 전남도, 지역 시설과 업무협약

전남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마음 챙기기’에 나선다. 전남도는 30일 (사)전남아동복지협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마음 토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협약을 따라 전남지역 아동양육시설과 성 상담소를 1대 1로 매칭해 성 전문 상담자가 시설을 방문해 아동 특성을 반영한 소그룹을 주기적으로 상담토록 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아동양육시설은 22개소로, 84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인, 나트륨 더 먹고 당류 덜 먹는다

식약처 2018~2022년 분석 나트륨 WHO 권고기준 1.5배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2018~2022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74mg으로 WHO 권고 기준(하루 2000mg)의 1.5배를 웃돌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나트륨을 3576mg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섭취량은 2573mg으로 남성보다는 적었다.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분석됐다. 이는 김치, 국, 탕, 찌개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반면 2022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34.6g으로 WHO 권고 기준보다 낮았다. WHO는 당류를 1일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34.6g은 1일 총열량의 7.6% 수준으로 권고기준 이하이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4년 05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800,000,000원을 금 2,7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한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 760,000주 중 220,000주의 주식을 당 회사에 동의하는 주주에 대하여 임의(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760,000주를 54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를 희망하는 주주들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1일
남도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촌로 30
대표이사 이훈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5월 17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주식회사 서경에너지
전라남도 나주시 신기길 1(석현동)
청산인 이창섭

산행안내

6월1일(토)
▲광주호산회 6월 1일(토) (제67차 정기산행) 안동 에기마을, 선성수상길, 도산서원, 트레킹) 06시 30분 중앙동 뒷대마트 7주차진출발 06시 45분 진월동 육교 밑 06시 50분 백운우체국 07시 뒷대마트 07시 15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te.daum.net/gwangjuhosan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기78억
은행 36억5천, 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주일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